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글월고등학교에는 자주 묘한 소문이 돈다.

우리 학교 애들이 소문에 관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학교 주위에 이상한 일이 많은 건지.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른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다.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 척을 하고 있으면 온갖 종류의 헛소문이 들려오니까.

‘교장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불고기래.’

같이 코웃음이 나오는 얘기부터

‘학생회장이 사실 글월고의 숨겨진 실세래.’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를 루머.

‘늦은 밤.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지는 귀신 들린 교실이 있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섬찟한 괴담까지.

다 뜬소문 같긴 하지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엔 불씨가 있어서다.

첫 번째 소문의 불씨는 점심시간에 지겹도록 나오는 불고기 메뉴와 그걸 신나게 먹어 치우는 교장.

두 번째 불씨는 학교 행사마다 이상하리 만큼 빠지지 않고 얼굴마담을 하는 학생회장.

그러니 세 번째 소문에도 불씨가 있는 건 당연한 얘기였다.

“도착했어요. 여기가 저희가 모이는 곳이에요.”

앞서가던 채아람이 복도의 끝에서 멈춰 섰다. 학교 꼭대기 층에 복도 가장 구석에 있는 방.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들린 적 없는 장소다.

[ 글월고 학생회 ]

문은 닫혀있지만, 문틈 사이로 불빛이 약간 새어 나온다.

소문이 퍼진 이유가 이거였구나.

“안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다른 사람들 말이지?”

괴물을 쓰러뜨린 뒤, 채아람은 나한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줬다.

‘밤엔 저런 괴물이 나오고, 저는 괴물과 싸우는 팀 소속이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말하면 좀 복잡해져서….’

‘선배가 다른 분들 있는 데서 직접 듣는 편이 알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채아람의 말대로 따라왔다. 설마 거기가 우리 학교 학생회일 줄은 몰랐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 포함해서 네 명밖에 없긴 해요.”

“그, 그래?”

네 명밖에? 무슨 소리야. 내가 하루에 모르는 사람을 셋이나 더 만나야 하는 건데? 너무 허들이 높잖아!?

“선배. 그렇게 안 쫄아도 돼요! 다들 착하시거든요.”

“그니까 빨리 들어와요.”

채아람은 킥킥 웃더니 학생회 문을 열었다.

<<끼익, 화면 전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커다란 창문 덕분에 안은 밖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넓어 보인다.

창문 살짝 앞에 자리 잡은 직사각형의 책상. 그 주위에 편할 대로 놓인 의자들.

벽에는 구색 갖추는 용도로 보이는 책장과 작은 서랍장 하나가 놓여있다. 평범한 동아리 부실에 어울리는 장소다.

두리번거리던 도중, 내게 또렷한 시선이 날아왔다.

“고생했어, 아람아.”

시선의 주인은 책상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커튼이 쳐진 창문을 등지고선 학생회실을 둘러보는 나를 관찰한다.

“아까 문자로 말했던 사람이 저 후배구나?”

검은 단발의 여학생.

학교에 친한 사람이 없는 나조차도 아는 사람이다. 학교에 크고 작은 일에는 항상 나오니, 글월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얼굴이다.

“글월고등학교 학생회장. 고은혜라고 해.”

“아, 안녕하세요.”

“후후. 만나서 반가워.”

멀리서 보였던 인상대로의 느낌이다. 나보다 1살 많을 뿐인데 느껴지는 어른스러움. 정말로 나랑 같은 고등학생이 맞나?

“근데 은혜 언니. 이제 그냥 채팅방 들어오면 안 돼요? 문자 따로 보내는 거 엄청 귀찮은데.”

“으흠.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저번에도 그러고 안 했잖아요!”

불만스러운 채아람의 말을 흘리고, 고은혜는 학생회실에 앉아 있는 다른 둘을 쳐다봤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전부 아람이가 보낸 내용은 알고 있겠네요.”

“네…. 근데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날카로운 눈매의 여자애가 뚫어지라 내 얼굴을 쳐다본다. 생각나지 않는 답에 미간을 찌푸린 여자애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아!! 생각났다! 야! 너 우리 반 걔지! 맨날 엎드려서 자는 애!”

나도 생각났다. 반에서 엎드려 자고 있으면 가끔 귀찮게 잔소리하던 꼬맹이.

“순간 생각 안 나서 누구인가 했네. 나 누군지 알지?”

“아, 응. 알지. 그….”

그….

실례지만 누구시더라.

이름까지는 생각도 안 나는데.

곤란한 걸 알아챘는지, 여자애 뒤에 서 있던 선생님이 나한테 소곤거렸다.

‘...ᅟᅡᆫ...소....ᅟᅯᆫ.....’

도와주고는 있는데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선생님이 답답한 표정을 짓고는, 두 손을 모아 아까보다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

“....하안....소오.....”

“선생님!”

“꺄악! 까, 깜짝이야. 소원아. 왜 그래?”

“저한테도 다 들리거든요!?”

“그, 그랬니? 아하하.”

뾰로통한 얼굴로 한소원이 날 째려본다.

“야, 드르렁. 지금이라도 외워. 알았어? 한. 소. 원. 이야.”

“네…. 외우겠습니다….”

“소, 소원아. 드르렁이라니. 같은 반 친구를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친구가 상처받잖아.”

“1년 동안 같은 반 애 이름도 모르는 쟤가 잘못한 거죠!”

“그, 그건 있지? 누구나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TV에서도 그걸로 퀴즈를 내고 하잖니.”

“야! 너 선생님 이름 말해봐.”

앗.

“소원아.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담임선생님 이름은 알지~”

선생님이 그건 너무 나갔다면서 살포시 웃었다.

우리 반 담임선생님. 약간 얼빠진 느낌에, 항상 헤실헤실하고, 실수를 남발하는 덜렁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이름이 뭐였더라.

“.......서, 선생님 이름은 알지?”

“......”

“알지…? 아~♩ 아~♪ 아~♬”

선생님이 묘한 멜로디를 부른다.

힌트인 건 알겠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결국 머릿속 칠판에 ‘친구들아, 미안해.’를 적고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도! 래! 솔! 도래솔 선생님이잖아! 너랑 상담도 했었잖니!”

“......그, 졸면서 반쯤 흘려들어서.”

“너무해! 진짜 너무한다! 상담 1시간이나 했는데!”

“내가 뭐랬어요. 얘 기억 못 할 것 같더라니까!”

도래솔 선생님은 정말로 속상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였다. 한소원도 짜증으로 입을 잔뜩 내밀고 있다.

아는 얼굴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 이름 퀴즈 2연속 실패로 분위기가 초토화됐다.

간단한 소개에서 이렇게까지 말아먹다니. 내가 생각해도 진짜 파멸적인 아싸력이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선배가 아예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아람이 말대로야. 서로 굳이 더 소개할 필요는 없겠네.”

채아람이 잽싸게 돌린 화제를 학생회장이 이어받았다.

“으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지?”

“본론이라면….”

“오늘 후배가 봤던 괴물에 관한 이야기야.”

학생회장의 목소리는 그대로인데도, 주위가 조용해진 듯이 크게 들렸다.

“한밤중 어두운 곳에서 나타나는 괴물. 종류는 귀신에서부터 요괴. 정체를 알 수 없는 것까지 다양해.”

“그 괴물이 어디서 생겨난 건지,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알 수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미지’라고 부르고 있어.”

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하나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려나?”

“그, 그런 게 있는데 경찰은 뭐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왜냐하면 있지?”

학생회장이 손가락으로 자기의 눈 근처를 톡톡 쳤다.

“미지는 평범한 사람에겐 보이지 않거든.”

“정확히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미지와 엮일 수 없다’ 고 해야겠네. 둘은 서로 인식도 접촉도 불가능해.”

“경찰도 그 누구도 미지를 이해할 수 없지. 미지에 대해 말해봤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야.”

“여기 있는 학생회 4명. 아, 후배를 포함해서 5명을 빼곤 말이야.”

나는 미지와 만났다. 만난 것만 아니라 직접 만지기도 했다. 그 말은 즉….

“저도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채 “네. 선배도, 저도 다들 똑같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정상을 벗어나 미지가 보이게 된 거죠.”

한 “하여간 지지리 운도 없어.”

도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새로 친구도 생겼잖니.”

한 “네? 쟤요? 아직 친구 아닌데요.”

도 “히잉….”

고 “으흠.”

학생회장이 헛기침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시 잡았다.

“어째서 우리가 미지에게 노려지는 걸까. 미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은 현재 우리도 알지 못 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알고 있어. 그건 바로….”

“미지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거야. 학생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건데요?”

가능하면 미지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인생의 끔찍한 경험은 오늘 밤에 있던 걸로도 차고 넘친다.

“후후. 원래는 학생회에 들어온다고 말하면 알려주려 했는데.”

“후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네.”

학생회장의 눈이 사악하게 번뜩였다.

“그럼 알려줄게.”

몰래 나쁜 일을 고백하는 아이처럼 내게 소곤소곤 속삭인다.

“미지를 죽이는 거야.”

“...네?”

“밤에 나오는 미지를 죽이는 것. 미지가 더는 두렵지 않을 정도로 미지를 쓰러뜨리는 것.”

“그게 우리가 찾아낸 방법이야. 미지에게서 벗어나는 가장 그럴싸한 방법.”

미지를 죽인다? 그 괴물이랑 맞서 싸운다고? 제정신이야?

한 “야,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인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건 맞는데.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 미지는 도망가면 그만이거든?”

“그래. 미지는 위험하지만, 도망치면 그만이지. 밝은 곳이나 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면 미지는 더는 쫓아오지 않아.”

채 “사실 아까도 선배가 없었으면 저도 도망치려고 했어요.”

어? 내가 미지와 만났을 때는 계속 쫓아왔었는데?

<<주인공이 도망치는 회상 씬>>

아. 맞아. 나 계속 어두운 곳으로 도망쳤지. 그래서 쫓아온 거구나.

...좀 억울하네.

“미지가 위험하면 도망치고, 약해 보이면 쓰러뜨린다. 이것만 지키면 미지는 다치지 않고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어.”

“그리고 미지를 죽이는 것으로 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 시간도 늦었으니까.”

졸려서 하품하는 채아람을 곁눈질한 학생회장이 이야기를 멈췄다.

“우리가 후배에게 얘기해줄 건 지금은 이걸로 충분할 거야. 학생회의 목표는 미지를 죽여서 다시 원래대로의 생활을 되찾는 것.”

“그럼 후배는 어떡할래? 우리가 알려준 것처럼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잘만 도망치면 다칠 일은 없어.”

“물론 평생 밤마다 밝은 곳만 찾아다니고, 어두운 곳에선 도망치며 살아야겠지만.”

미지와 싸우거나, 미지에게서 평생 도망치거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 보였다.

위험한 도전과 안전한 도망.

평소의 나라면 고민하지 않고 뒤를 골랐을 거다. 괴물과 싸운다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뛰쳐나갔겠지.

하지만 이젠 안다. 여기 모여 있는 네 명도 나만큼 무서웠을 거다. 미지와 싸운다니 누구나 무서울 일이다.

<<학생회 네 명>>

그래도 이 네 명은 당당히 맞서고 있다.

공포영화의 주인공처럼 미지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싸우기로 정했다.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위험에 몸을 던졌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바뀌고 싶다.

미지든, 외로움이든. 내게 닥친 무슨 일에서도.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또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후.”

학생회장은 내가 뭘 고를지 알아차린 것 같았다. 아마 내 표정에서 다 드러났겠지.

“학생회. 저도 할게요.”

“응. 후배라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자세한 건 다음에 알려줄게. 아쉽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학생회장이 채아람을 쳐다봤다. 의자에 앉은 채아람의 고개가 뒤로 완전히 젖혀져 있다. 용케 저런 자세로도 자는구나.

도 “아람아. 일어나. 집에 가서 자야지.”

채 “우웅…. 넹. 소원 언니. 업어줘요.”

채아람이 날다람쥐처럼 팔을 벌리고는 한소원에게 엉겨 붙었다.

한 “야! 무거워! 들러붙지 마!”

고 “아람이는 졸려 보이니 소원이랑 도래솔 선생님이 맡아주세요. 후배는 제가 데려다주고 갈게요.”

도 “아하하…. 그래 줄래?”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학생회장이 가방을 메고 내게 손짓했다.

“그럼 우리도 갈까?”

===

“......”

조용하다. 학생회장은 꼿꼿한 자세로 말없이 내 뒤에서 걷고 있다. 숨 막히게 어색하다.

뭔가 얘기하면서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뭘 주제로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수험? 취미? 연애?

뭘 꺼내든 어색하게 대화가 끝나는 게 보인다. 그럴 바엔 그냥.

“......”

지금처럼 입 다물고 가자.

인싸들은 대체 어떻게 그리 재잘재잘 쉬지 않고 떠들 수 있는 걸까. 새삼 존경스럽네.

대화는 캐치볼이라고 하던데. 공을 어떻게 던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후배는 무슨 과야?”

“네!?”

느닷없이 공이, 아니 대화가 날아왔다.

“미안. 너무 갑작스러웠지? 문과인지 이과인지 묻는 거야.”

“아. 저는 문과에요.”

“그렇구나….”

내 대답에 학생회장은 약간 실망한 눈치다.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문과가 잘못한 건가?

“그러면 후배도 핸드폰은 잘 모르겠네.”

“......네?”

학생회장이 주머니에서 오랜만에 보는 기종의 구식 스마트폰을 꺼냈다.

“사실 아람이가 채팅방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내가 문과라 들어갈 줄을 몰라서 못 들어갔거든. 후후.”

“그건…. 문과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으흠. 나는 문과고, 기계 다루는 일에 약하니 연관은 있어.”

스스로 아닌 걸 아는 얼굴인데요. 이걸 던졌다간 백 퍼센트 데드볼이겠지. 입 밖으로 튀어 나가려던 공을 멈춰 세웠다.

“혹시 후배는 아람이가 말한 거 할 줄 알아?”

“채팅방 초대요? 네. 잠깐만 폰 빌려주실래요?”

“그건 안 돼.”

학생회장이 몸 뒤로 핸드폰을 숨겼다.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있잖아. 함부로 남한테 빌려주면 안 돼.”

“아니. 이상한 짓 안 할건데요….”

“후후. 그럼 내가 지켜봐도 되지?”

학생회장이 곧바로 폰을 내게 건네줬다. 처음부터 노리고 있던 건 이쪽이었나보다.

“으음. 거기서, 그렇게….”

내가 학생회장의 핸드폰에 메신저 앱을 깔고 채아람이 보낸 초대 주소를 따라 들어가는 걸 옆에서 유심히 지켜본다.

“자. 다 됐어요.”

“아. 잠깐만. 후배 핸드폰 번호가 뭐야?”

“010-xxx-xxxx요.”

“응. 조금만 기다려줄래?”

학생회장에게 번호를 알려주자, 자기 핸드폰을 잡고 한참을 씨름하기 시작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띠링.

내 핸드폰에 설정된 기본 알람이 울렸다.

[ 고은혜님에게서 채팅방 초대가 도착했습니다. ]

“어때? 잘 도착했어?”

“아, 네. 지금 채팅방 들어갔어요.”

“응. 이제 후배도 우리 학생회 일원이니 말이야.”

말을 멈추고 학생회장이 핸드폰을 누른다.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 앞으로 잘 부탁해. ]

“네. 잘 부탁해요. 회장님.”

“회장님? 후후. 그렇게 부르면 CEO 같잖아. 겨우 학생회장인데 떵떵대는 느낌이고.”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회장님보단 선배가 좋겠네. 나도 널 후배라고 부르니.”

“서…. 선배?”

“응?”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약간 부끄러워하는 내게 은혜 선배는 대답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 후후. 그래. ]

그 뒤로 나를 데려다주고 떠나갈 때까지, 은혜 선배는 뿌듯한 얼굴로 핸드폰을 누르고 있었다.

==========

<학생회 채팅방>

고은혜 [ 다들 안녕. ]

고은혜 [ 아. 도래솔 선생님한테는 반말이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

고은혜 [ 도래솔 선생님. 안녕하세요. ]

고은혜 [ 채팅방에 안 들어온다고 아람이가 얘기했잖니. 그래서 들어왔어. ]

고은혜 [ 채팅방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아람이가 얘기한 것 때문에요.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

한소원 [ 은혜 선배! 지금 2시에요! ]

한소원 [ 그리고 반말이나 존댓말 하나만 보내세요! ]

고은혜 [ 으응. 시간이 늦었네. 미안. ]

고은혜 [ 합니다. ]